

海外旅行 ③ 見聞記

축산의 나라 호주 견문기

김 권 철
(농림부 중소기업계장)

2. 홀스타인협회(Friesian Cattle Club of Australia)

협회의 하는 일은 젖소의 자질개량을 위한 등록 및 능력검정사업과 등록부등 출판물발간사업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시상하는 것 등이라 한다.

협회 회원은 개인, 단체, 회사등 젖소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가입할 자격이 있으며 탈퇴할 때는 서면으로 그 뜻을 전하고 재무정리 하여야 하는데 회비는 년 2\$ (약 820원)로서 7월1일(회계년도 7월1일~6월30일)까지 지불해야 하고 1년간 회비를 안내면 회원자격을 박탈당한다. 일단 자격을 상실했던 회원이 다시 가입을 원할 때는 우선 재가입할 때까지 밀렸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부는 5인이상의 유자격회원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각 주에 1개소 이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부의 승인하에 지소를 둘 수 있으나 지소에서는 지부에서 처럼 본부에서 열리는 중요회의에 참가할 대표위원을 선정, 파견할 권한이 없다.

각 지부는 본부의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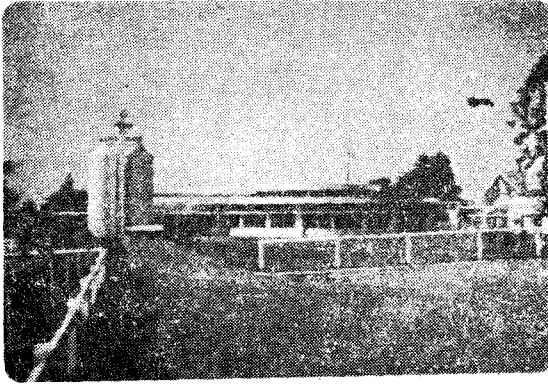
내에서 지부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예: 임원선거등)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또한 지부 운영을 위한 회비 납부액도 정하는데 결정된 회비는 일단 본부가 수급하여 매 분기 별로 지부에 환부해 준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준회원제도로서 협회가 필요에 따라 준회원을 둘수도 있다. 또 21살 미만은 정회원이 되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주니어멤버라 불러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이들의 회비는 50센트(약 200원)이며 21살 이상 되어야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협회운영을 위한 이사는 25명으로 이들은 전에 말한 각 주의 지부에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임기(任期)는 1년이다.

등록된 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소의 왼쪽사진을 찍는데 머리는 사진을 찍는 쪽을 향하게 하고 머리모습과 왼쪽을 같이 촬영한다. 캐나다에서는 그려놓은 소의 모양에 흑백무늬를 사생(寫生)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지만 어느 경우든 양쪽을 대표시키고 머리부분을 정면에서 본 형태를 그리는데 호주에서는 사생은 절대 인정되지도 않고 사진은 왼쪽만으로 족하지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양쪽 다 촬영하며 등록증에도

사진을 붙인다. 하필 왜 왼쪽 사진을 필요로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곳의 전통이란다. 또 왼쪽의 모습이 같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동일한 무늬와 형태를 가진 소는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다.



“로터락데이토” 전경

“시드니에서 약 50마일(200리)쯤가면 이 “로터 락 데이토”라는 것이 있는데 1일 5,000마리의 소를 기계를 이용 완전 자동식으로 착유한다. 젖을 짜는 동안 보이는 싸이로에서 농후사료가 자동적으로 공급되며 소들은 맛있는 농후사료도 먹을 겸 젖을 짜는 시원한 기분을 즐기기 위하여 몹시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우유짜는 것임.

이곳 협회가 규정한 젖소의 실격 조건을 살펴 보면

- ① 이모색(異毛色).
- ② 순백색(純白色).
- ③ 꼬리의 끝 부분이 검은색일 때.
- ④ 4다리중 어느 하나가 검은 털로 뺨 둘러 쌓여서 그선의 일부가 발톱까지 닿은 것.
- ⑤ 검은털이 발톱부터 무릎까지 잇닿아 있을 때 등이다.

④와 ⑤의 경우 순종여부나 능력등과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이런 경우 혼혈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나 한국의 등록규정상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한국의 경우 검은 털이 발톱을 뺨 둘러렸을 때는 실격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지금도 기억된다.

이들 규정에 의한 발에 관한 실격조건을 도해하면

젖소의 등록조건으로서 부모소가 다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심사결과 상기 5개항의 실격 사유가

무 료



등록가능

검은털이 발을 둘러쌓지도 않았고 발톱까지 잇닿아 있지 않다.



실격

검은털이 발을 한 바퀴 뺨 둘러싸고 있다.

무 료



등록가능

검은털이 무릎까지 닿지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발톱부분이 검은 털로쌓여 있어 실격임)



실격

검은털이 무릎부터 발톱까지 잇닿아 있다.

없는 이상 등록 자격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육해온 순종이지만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나라의 등록협회에서 등록된 것은 자기나라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등록료도 안받는다.

- | | | |
|--------|---------|-------|
| ① 영 국 | ② 뉴-질랜드 | ③ 캐나다 |
| ④ 미 국 | ⑤ 남아프리카 | ⑥ 폴란드 |
| ⑦ 네델란드 | | |

비등록우를 신규로 등록할때 한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비하여 이곳은 다음과 같이하여 5대째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PPENDIX(附點)4: 비등록 암소와 등록된

숫소 사이에서 생산된 새끼로서 검사결과 품종의 특징이 인정된 소

APPENDIX 3: APPENDIX 4인 암소와 등록된 숫소 사이에서 생산된 소

APPENDIX 2: APPENDIX 3인 암소와 등록된 숫소 사이에서 생산된 소

APPENDIX 1: APPENDIX 2인 암소와 등록된 숫소 사이에서 생산된 소

APPENDIX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뜻을 몰라 무척 당황했으며 여러차례 질문하여 내용을 확인했으나 지금까지도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부점소(附點牛)란 용어를 써왔다.

협회에 등록신청했는데 등록부에 기재하기전 또는 등록증을 받기전에 도매 또는 폐사했을 때 숫송아지는 두당 2\$ 암송아지는 1\$씩 환불받는다.

등록된 소는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나 경매장에서 매매할 경우 미리 장소와 시간을 협회에 통보하면 협회직원이 참석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확인료는 무료이지만 매매했을 때 3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고 이전증서료로서 1\$에다 소값의 1%를 납입해야 한다. 경매 아닌 개인간의 이전에도 똑같은 비용이 들고 이전증서를 받게된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협회에 요청하여 재 발행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2\$이다.

3. 젖소의 등급 사정

등록된 소는 협회 규정에 따라 검사원이 검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	평균능력(kg)	
			우 유	유지방
수(Excellent)	90~100	0.21	6,956	257
우(Very Good)	85~89	4.58	6,213	226
미(Good Plus)	80~84	42.95	5,464	198
양(Good)	75~79	43.49	5,065	182
가(Fair)	65~74	8.70	4,904	176
불가(Poor)	64이하	0.07	—	—

단 이때 불가(Poor)로 판정된 소로서 사육자가 등록을 취소하면 협회는 이를 승인할뿐 아니라 이 소의 등록료도 되돌려 준다.

이표에서 %는 심사결과 일정등급에 합격된 소를 전체 등록우 두수로 나눈 것이며 생산능력은 같은 등급에 속하는 소의 능력을 평균한 것임.

등급심사를 받는 소는 3살 이상의 소로서 적어도 한번이상 새끼를 가진 소이어야 하며 수검 당시 젖을 짜든가 앉짜든가는 상관없다. 심사는 반드시 신청한 소에 한하므로 그 지방에서 신청한 소는 검사원이 그 지방에 있을때 전부 다 심사한다. 따라서 그때 신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신청하였을 경우 수검계획에 따라 다시 심사원이 찾아올 때까지는 약 1년이 걸린다. 수검료로서 농가 방문료를 최소 20\$으로 정하고 두당 심사료를 2\$씩 받으나 수검가능한 소가 10두 미만밖에 안된 농가는 10\$만 받는다. 일단 등급사정을 받은 소의 재심은 1\$이 요하며 이때 등급이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내릴수는 없다. 또 회원은 수검가능우는 수검을 받도록 강력히 중용받고 있다.

4. 품 평 회

우리나라는 한우참피온대회를 제일 큰 가축품평회로 알고 있지만 이곳은 각 주(州)마다 날자를 달리하여 품평회를 갖는데 이곳에서 제일 큰 품평회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시드니에서 열리는 뉴-사우스 웨일즈주 품평회인 부활절품평회(EASTER FAIR)다. 그리고 어떤 품평회는 젖소품평회가 큰 몫을 차지한다.

멜본에서 약 200리 떨어진 시골에서 열리는 품평회에 참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한우참피온대회를 하면 암소, 황소, 비육소에 수상이 있고 황소에 참피온을 수상하는데 심사원도 여러사람이 동원되어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상할 소를 결정하는데 이곳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단 한사람이 전부를 심사하는데 다음 7가지 체급별로 수상한다.

- | | |
|-----------|-----------|
| 가. 2살~2살반 | 나. 2살반~3살 |
| 다. 3살~3살반 | 라. 3살반~4살 |
| 마. 4살~4살반 | 바. 4살반~5살 |
| 사. 5살 이상 | |

한가지 독특한 것은 젖소의 작품종을 총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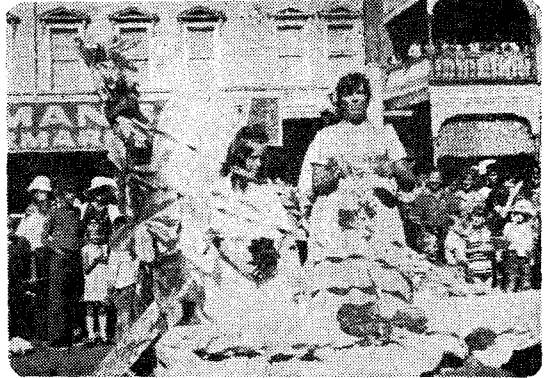
한 최우수소를 선발하고 각 품종별 우수소를 선발하는 것으로 최우수소를 선발할 때는 각 품종에서 한사람씩 심사원을 선발하여 이들의 종합 점수로 일등을 정한다. 예를들면 홀스타인계에서 한사람 저지계에서 한사람, 건지계에서 한사람, 부라운 스위스계에서 1사람씩 4명이 심사하는데 각계통에서 자기계통 품종에 일등이 가도록 평점했을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품종의 소에다 더 많은 점수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종합 점수 일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 품종마다 심사원을 내는 등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심사원이 공정할 것을 기대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지를 좋아하는 한사람을 심사원으로 했을 때 그사람이 너무나 그 품종을 좋아하여 거기에 사실 이상의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젖소의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평점기준은 한국과 약간 차이가 있어 이를 발표하고 싶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하고 개략만 말씀드리면 한국은 여러 부위를 통합하여 배점하였는데 이곳은 비교적 세부적으로 배점되어 있다는 점이고 부위별 배점에도 약간 차이가 있다.

이곳 젖소의 채형면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분

별되는 것은 캐나다계통의 대형종과 뉴질랜드계통의 소형종인데 이곳 농민은 고기값의 영향 때문인지 소형종 보다는 대형종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로서 젖소관계의 설명은 끝을 맺고 앞으로는 닭관계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한다



부활절행사의 한 장면

역시 “벤디고”에서 구경했던 것으로 그날은 미녀들의 행진도 결드려 있고 중국인들은 커다란 “용”을 만들어 시가행진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온 시내가 축제기분으로 들떠있다.

건국 사료

건국배합사료공업주식회사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실험공장

서울특별시성동구지양동544 - 7 TEL 직통 55-2294 교환 55-0061 - 9